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를 사례로 -

이 동 민**

A Study on the Meaning of Geography-Based Integrated Liberal Education Program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Lecture Entitled "Reading the History
of World War II Through the Lens of Maps and Geography" -

Dong-min Lee**

요약: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을 주제로 하는 융합 교양 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를 사례로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진행을 위해 종강 직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강생 76명에게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설문지와 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와 성찰일지는 각각 양적 분석 및 질적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현상기술학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 수강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의 발달 정도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수강생의 전공이나 지리학 배경 지식과는 무관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치가 높았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지리·역사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이해를 제고하고 학제 간 통합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중 상당수는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지리·역사 통합적 이해를 시민성 제고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강좌 수강 후에도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리·역사 통합 교양교육의 가능성과 미래 지리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융합, 교양교육, 지리, 역사, 제2차 세계대전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a geography-history integrated liberal education course entitled "Reading the History of World War II Through the Lens of Maps and Geography." To this end, the author guided the participants, who were course students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through the completion of surveys and reflective journals, which were then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s and phenomenology, respectively. The finding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improvements in geographical, historical, and integrated perspectives. Although these resul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articipants' majors and geography education backgrounds, male participants had significantly higher means than female participants.

* 본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루어졌음(CKU-21-02-0105).

**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r.dongminlee@gmail.com

Additionally, most participants developed a refined, in-depth, and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World War II histories and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based on geography-history integrated perspectives, and many acquired their citizenships as a result of their improved integrated understanding of World War II histories. Based on their improvements of their integrated understanding of World War II histories. Nevertheless, some participants showed little change or development despite taking the 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facilitate meaningful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of geography-history integrated liberal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future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integration, liberal education, geography, history, World War II histories

I. 서론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학제·교과 간 통합은 오늘날 학문과 교육의 주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김민성, 2019; Nonthraft, 2016).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리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교과와의 통합 교육을 구안 및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인 STEAM (Sciencl,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은 국내외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김민성, 2019; Gao, Jiang, and Zhou, 2019; Solís *et al.*, 2017). 각국의 지리 교육과정 개발 역시 융합형 인재의 육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ee and Butt, 2013).

한편 오늘날 지리교육계와 지리학계에서는 ‘지리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지리 교과 시수의 축소, 학생들의 지리 교과에 대한 선호도 및 성취도 저하, 지리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교수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박철웅, 2016; Bell, 2005; Svobodová, Spruná, and Knecht, 2020). 이러한 문제는 지리교육과 지리학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의 모색은 지리교육 및 지리학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사안은 지리교육 분야가 교양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리 교과는 보통 교육 교과에 속하는 만큼 교양교육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지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역사 또한 결코 얇지 않다(김민성, 2018; Hudson and Hinman, 2017). 교양교육은 특정 전공이나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리교육의 저변 확대는 물론 융합적 지리 교육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김일립, 2017; 박혜정, 2020; Hudson, 2017). 즉,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공교육이나 교과교육은 물론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의 개발과 실천 방안에 대한 학술적 접근 또한 중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지리교육적·융합교육적 의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2021년 1학기에 온라인 교양 강좌 형태로 개설된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 수강 후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의 변화나 발전 여부를 설문지 및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설문지를 기술통계,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등의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강좌 수강에 따른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의 변화 정도 및 관련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성찰일지를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기술학(phenomenography)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강좌 수강이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의 변화 및 발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심도있게 해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리교육에서 융합교육의 실천 방안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된다.

II. 지리 기반 융합형 전쟁사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

1. 융합 교양교육의 시의성과 지리교육적 의의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가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학제 간 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성, 2019; Nonthraft, 2016).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교육 전 분야에서 융합과 통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민성, 2019; 김수연, 2016; Harris and de Bruin, 2017).

통섭이나 융합교육은 다양한 교과 및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학 교양교육은 특히 융합교육과의 접점이 강하다. 이는 교양교육의 전통 및 목적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즉, 교양교육은 태생적으로 융합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는 대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1~12세기 이후 서유럽 각지에 설립되기 시작한 여러 대학은 전공이나 기술 교육 외에 교육받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교양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다(손승남, 2013; 이지성, 2017; 최현철, 2019). 중세의 교양교육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주요 교육 내용이었던 자유 7과(Seven liberal arts: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술(算術), 기하, 음악, 천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대학 교양교육의 내용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최현철, 2019; Conrad, 2014). 예를 들어 16세기 초반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에서는 종교교육 만으로는 평신도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 따라 자유 7과 중심의 교양교육 강좌를 개설했다가, 이후 신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교양 수준 함양을 위해 문학, 역사학 등 기존에는 신학대학생 대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교과도 교양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형태의 교양교육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이지성, 2017). 근대 이후의 대학 교육에서도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대학생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최현철, 2019).

상기한 내용은 교양교육은 그 출발부터 강한 융합적 속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융합교육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자유 7과부터가 수사학, 산술, 음악 등 상이한 학과의 통합적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Conrad, 2014). 이처럼 융합적 속성이 다분한 교양교육은 학제 간 통합과 융합적 사고가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

학 교육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융합적 사고력 함양과 통합적 인재의 양성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하버드 대학교는 2007년 학부 교육과정 개선에서 교양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다원적·융합적·학제적 역량 함양으로 재설정한 바 있다(최현철, 2019). 오늘날 세계 각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융합교육을 통섭적·융합적 안목과 역량 함양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박혜정, 2020; 최현철, 2019; Hovland and Schneider, 2011). 이러한 점에서 융합 교양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자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융합 교양교육의 시의성과 의의는 지리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자 교과인 지리는 교양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김민성, 2018; Hovland and Schneider, 2011). 학제 간 통섭과 융합의 중요성은 지리 교육과 지리학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공간을 다루는 지리 교과는 타 교과 및 학문 분야와 통합될 필요성 및 가능성도 크다(김민성, 2019; 이동민, 2021). 더욱이 교양교육은 전공자를 넘어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 교양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교양교육 발전과 통섭적·융합적 인재 양성은 물론,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 할 가능성을 적지 않게 가진다고 판단된다.

2. 전쟁과 전쟁사의 지리적 속성

전쟁의 흐름과 과정 및 성패는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우선 전쟁의 발발 원인은 주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요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지역의 점유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유사 이래 무수히 이어져 온 정복 전쟁, 종교전쟁, 식민지 쟁탈전, 영토분쟁 등은 이러한 속성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 발칸반도, 카카스와 같이 종교의 성지나 교통의 요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 다양한 종교나 민족집단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지역 등에서는 그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약고’ 등으로 비유되며 전쟁이 자주 일어난 경우가 많다(Berryman, 2018; O'Loughlin and Witmer, 2011).

전쟁의 흐름과 경과 역시 지리적 요인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다. 전장 공간의 거리와 접근성, 산맥이나 하천, 삼림 등과 같은 천연 장애물의 분포, 도로망이나 도시, 동맹국이나 적대국의 지정학적 관계 등은 전략·전술은 물론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러일전쟁 당시 제정 러시아는 일본제국보다 월등한 국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여러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영국이 제정 러시아를 집중 견제했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는 주력군을 유럽 전선에 둑어 두어야 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기 전이라 병력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수적·질적으로 부족했던 극동군 병력만으로 일본제국군과 싸워야 했으며, 발트해, 흑해, 태평양 등의 해역이 지리적으로 분단된 데다 영국의 방해 공작까지 겹쳐 지면서 발트 함대와 극동함대가 적시 적절하게 못한 채 일본제국 연합함대에게 각개 격파당했기 때문이었다 (Koda, 2005; Patrikeeff and Shukman, 2007; Stoddart, 1992). 소련과 미국이 각각 1980년대와 2000~2010년대에 막대한 병력과 물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극도로 협준한 지형, 다양한 부족 집단 간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맥락 등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Rech *et al.*, 2015; Woodward and Jenkins, 2012).

이러한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리적 지식과 안목은 전쟁을 수행하고 지휘하는 군인과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손자병법』, 『육도(六韜)』, 『삼략(三略)』,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 고대 중국의 병서들이 공통으로 군사 지휘관·참모나 정치지도자의 지리적 안목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중시한 점, 그리고 고대 로마의 장군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 63~12 B.C.)가 정밀한 지도를 편찬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군사적 정복 활동에서 얻은 지리 자료와 정보를 『아우구스투스 업적록』에 소상하게 포함했다는 사실은 이미 고대부터 전쟁에서 지리 지식과 정보, 지리적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Arnaud, 2016; Wang, 2021). 오늘날의 군대에서도 독도법, 약전 축성 등의 지리적 기능과 안목은 군인, 특히 지휘

관·참모의 필수적인 자질로 중시되고 있다. 아울러 각국의 군대는 현대와 미래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GPS, GIS,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장 공간을 실시간적·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도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Modiri *et al.*, 2013; Nothhaft, 2016; Smith, 1992).

이처럼 전쟁은 지리적 속성을 다분히 포함하기 때문에, 전쟁사 기술과 연구에서도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 사료(史料)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비롯한 당대 그리스에 알려진 세계 각지의 지리 관련 정보 또한 방대하게 수집하여 『역사』에 반영하였다(Clarke, 2018). 이 외에도 전쟁사 기술이나 연구에서 지리적 요인은 전쟁사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Harrison and Passmore, 2021; Stoddart, 1992; Rech *et al.*, 2015).

3. 지리와 역사의 학문적·교육적 연결성과 지리-역사 융합 교양교육

지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접점을 갖지만, 그중에서도 역사학과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역사의 흐름이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지리학은 학문으로서의 기원을 공유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권정화, 2020; 이민부, 2010).

서구 학계에서 지리학의 시조로 간주하는 인물은, 역사학의 시조로도 널리 알려진 헤로도토스이다(권정화, 2020; Clarke, 2018). 앞서 살펴보았듯이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통하여 서구 지리학과 역사학을 선구하였다. 이는 지리학과 역사학이 긴밀하게 연결된 학문임을 시사한다. 이븐 할둔(Ibn Khaldun), 이븐 바투탸(Ibn Battuta), 크세노폰(Xenophon) 등과 같은 전근대 시대의 학자들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리와 역사를 활용한 저술 활동을 한 바 있다(권정화, 2020; 이민부, 2010; Dale, 2006). 근대 지리학, 특히 인문지리학의 성립과 발전 역시 역사학과 관계 깊으며, 역사지리학은 오늘날 지리학 및 지리 교육의 한 분야를 이루고 이루고 있다(권정화, 2010, 2020; Mayhew, 2001).

이처럼 지리와 역사는 상이한 분과 학문이면서도 상호관련성과 연결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각국의 교육과정은 지리와 역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 체제인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등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사회과 체제를 취하지 않는 나라의 교육과정 역시 ‘지리-역사’ 등과 같은 체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심승희·권정화, 2013; 이간용, 2019). 아울러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ies)의 하나인 Story Maps를 활용하여 지리상의 발견, 제2차 세계대전사,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원주민 강제이주를 말하는 ‘눈물의 길(Trail of Tears)’ 등의 과정을 시공간적으로 재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이동민, 2021; Coleman, 2015; Egiebor and Foster, 2019)라든가 시간지리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조선시대사의 시공간적 안목 제고를 시도한 김민성(2019)의 연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리교육과 역사교육은 상호 통합 및 융합될 필요성과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지리와 역사는 학문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이 때문에 지리-역사 통합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접근 또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지리와 역사는 전공교육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치 역시 큰 분야이다. 인간과 세계의 시공간적 맥락과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자 교과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의 경우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16세기부터 대학 교양교육의 영역에 자리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의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서도 역사학 관련 내용이나 강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선주, 2006; Kurennoy, 2020). 지리학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인 만큼 각국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민성, 2018; Bjelland, 2004).

오늘날 사회가 학제 간 통합과 융합적 인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면, 그리고 지리와 역사 교과는 전공교육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리-역사 융합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교양교육 방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지리-역사 융합교육을 통해서 세계화, 다문화, 문명과 문화의 교류 및 융합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제고하고, 나아가 통섭적·융합적 안목과 역량을 증진한다는 오늘날 사회와 교양교육의 요구까지도 충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혜정, 2020; Hovland and Schneider, 2011).

III. 연구 설계

1.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개발과 운영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는 지리학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를 다루는 온라인 교양 강좌이다. 본 강좌는 지도와 지리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에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사건 및 전투를 지도와 지리학 이론을 통해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2차대전의 원인, 전개, 결과를 시공간 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안목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는 15주 차 분량의 2학점 온라인 교양 강좌다. 연구자가 교안을 제작한 다음 재직 중인 학교의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강좌를 촬영한 뒤 강의 동영상을 LM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과정은 아래에 서술하였고, 주차별 수업 내용은 표 1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2020년 7월 발표된 재직 중인 대학의 온라인 통합 교양 교과 개발 공모에 응모하여 동년 8월에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2020년 9월~12월에 걸쳐 레bensraum(Lebensraum),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영토의 변화 등 지리학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사 교양 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교안을 개발하였다. 2학점 교양 강좌로 총 15주차 분량이다. 각 주차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사의 흐름과 과정을 지리학 개념이나 전장의 지리적 특성, 연합국과 추축국의 지정학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지리 기반 융합형’ 전쟁사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2주차 강좌는 지정학적 개념인 레bensraum¹⁾, 그리고 1930년대 일본제국의 지정학적 상황 및 태

표 1.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주차별 수업 주제

주차	차시	수업 내용
1주차	1차시	전쟁사와 지도, 지리
	2차시	지도와 지리가 바꾸어 놓은 전쟁의 역사
2주차	1차시	지정학과 나치즘
	2차시	일본 제국주의 및 천황제 파시즘의 지정학
3주차	1차시	나치 독일의 발흥과 나치즘적으로 왜곡된 레bensraum
	2차시	나치즘적 레bensraum의 초석, 안슐루스
4주차	1차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레bensraum과 인종주의
	2차시	폴란드 침공 과정 및 결과
5주차	1차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2차시	낫질작전: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6주차	1차시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2차시	바르바로사 작전의 전개와 실패
7주차	1차시	청색 상황: 나치 독일의 카프카스 침공
	2차시	매킨더의 심장부 이론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해하기
8주차	1차시	중간고사
	2차시	중간고사
9주차	1차시	독일 아프리카 군단: 전설의 이면에 놓인 나치 독일의 지리적 야망
	2차시	엘 알라메인 전투
10주차	1차시	진주만 공습
	2차시	대동아공영권과 일본제국의 영역 확대
11주차	1차시	산호해 해전
	2차시	미드웨이 해전
12주차	1차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시	미군의 유럽 진주
13주차	1차시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와 태평양전쟁
	2차시	오키나와 전투와 오키나와의 눈물
14주차	1차시	소련의 만주 침공: 8월 폭풍 작전
	2차시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한반도의 분단
15주차	1차시	기말고사
	2차시	기말고사

평양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작용한 대동아공영권의 지정학적 의미²⁾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7주차 내용은 카프카스의 지정학적 의미와 매킨더의 심장부 이론을 중심으로 나치 독일의 청색 상황(Fall Blau)과 스탈린그라드 전투³⁾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강좌 내용이 무용담이나 영웅담처럼 왜곡되어 전달되는 일을 막고 인권, 평화 등과 같은 인류의 기본적 가치와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에 입각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다(이동민, 2021; 이해영, 2018; Hayden, 2004). 일례로 3~4주차에서는 나치즘적으로 왜곡된 레bensraum 개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나치 독일군의 유대인·슬라브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 범죄로 이어졌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10주차에서는 일본제국의 대동아공영권 프로파간다가 갖는 침략주의적 성격을 상세히 다루었다.

둘째, 연구자는 2020년 12월~2021년 1월에 걸쳐 재직 중인 학교의 온라인 강의 촬영 시설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양 강좌 영상을 촬영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2021년 1학기에 온라인 교양 강좌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를 개설하였다. 본 강좌의 강의 영상은 학교의 학습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 LMS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과 관련된 퀴즈 및 토론 과제도 함께 업로드한다. 출결 및 성적 관리 일체는 LM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수강생은 총 98명이었다. 수강생의 수가 많은 데다 온라인 강의로

나치즘적 레bensraum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①

나치즘의 변질된 레bensraum

□ 독일 민족이 확보해야 할 레bensraum : 동유럽, 유럽 러시아 일대
□ 인종주의적 레bensraum : 열등 민족의 절멸 → 독일인 이주




투브루크 전투 직후 이집트의 전황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②

핼퍼드 J. 매킨더의 심장부 이론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③

그림 1. 강의 슬라이드 예시(①나치즘적으로 변질된 레bensraum(3주차 1차시), ② 나치 독일 아프리카 군단과 북아프리카 전선의 지리학(9주차 1차시) ③ 청색 상황의 지리적 이해를 위한 매킨더 심장부 이론(7주차 1차시))

진행되는 강좌의 특성상 학생 중심의 활동은 시행하지 못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학년도 1학기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수강생 가운데 76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7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두 적용한 혼합 연구방법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을 위해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문항 및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성찰일지를 개발하였다.

양적 자료는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수강이 수강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 제고로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표 2에 제시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1은 역사적 안목, 문항 2~4는 지리적 안목(각각 지도학, 지정학, 자연 지리학), 문항 5는 통합적 안목, 문항 6은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총 6개의 문항 가

운데 3개가 지리적 안목을 측정하는 문항인데, 이는 본 연구가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에 접근하는 교양 강좌의 의의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울러 문항 2~4의 구성을 전쟁의 진행과 전쟁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도, 지정학, 자연지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논의 (Harrison and Passmore, 2021; Rech *et al.*, 2015)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은 지리교육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3인과 역사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역사 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문항마다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이외에 연구참여자의 성별과 전공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 공간인지, 지리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성, 2020; 신정엽, 2009).

질적 자료는 14주차에 수강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이다. 성찰일지는 양적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수강생들의 지리적 안목이나 통합적 안목 등이 발달하게 된 이유, 과정, 맥락 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성찰일지는 표 3에 제시한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LMS의 서술형 과제 기능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이 여기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수강생들의 경험이나 생각 등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하기

표 2. 양적 분석을 위한 문항 목록

-
1. 본 강좌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흐름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2. 본 강좌는 지도가 제2차 세계대전사 이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3. 본 강좌는 지정학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전개, 결과와 긴밀하게 관계됨을 이해하는 계기였다.
 4. 본 강좌는 지형, 기후 등 자연지리적 환경이 제2차 세계대전사 이해에 중요한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다.
 5. 본 강좌를 통해 역사와 지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6. 본 강좌는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만족스러운 강의이다.
-

표 3. 성찰일지의 질문 목록

-
1.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을 통해서 지리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깨닭은 무엇입니까?
 2.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제2차 세계대전사 등)과 지리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깨닭은 무엇입니까?
 3.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을 통해서, 학문이나 교과 간의 '통합'이나 '융합'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 바랍니다.
-

표 4. 현상기술학의 7단계 분석 단계

분석 단계	주요 내용
친숙화(familiarisation)	- 원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오류나 왜곡 등을 교정제거하는 단계
편집(compilation)	- 원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식별한 다음 유사성 및 상이성에 따라 대강 분류하는 단계
압축(condensation)	- 분절하고 과편화된 내용을 유사성, 관련성 등에 따라 묶어 주고 분류하여 앞 단계에서 대강 분류된 내용을 한층 구체화·세분화하는 단계
군집화(grouping)	- 세부적으로 구분 및 분류된 단위나 내용을 관련지어 잠정적인 범주를 도출하고 그 대략적 의미를 탐색하는 단계
정련(articulating)	- 잠정적인 범주들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한 다음 잠정적 범주의 내용이나 범주 간의 관계 등을 재검토·수정하여 최종 범주를 확정하는 단계
명명(labelling)	- 최종 범주의 의미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범주 명을 명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
대조(contrasting)	- 최종 범주, 즉 주제들의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현상기술학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하는 단계

위해 문항당 최소 7~8줄 이상의 분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양적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그리고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우선 문항 1~6의 평균값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여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의 수강에 따른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과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본 강좌가 의미 있는 지리 기반 융합 교양교육 강좌로서 효과를 거두었는가의 여부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문항 1~6의 평균값을 상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의 수강에 따른 지리적·역사적·통합적 안목의 발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가를 확인한다. 이어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항 1~6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변인이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 강좌의 교육적 효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한다.

양적 자료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도 실시한다. 질적 자료 분석은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에 따른 수강생들의 변화나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러한 변

화나 발전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를 맥락적·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은 학습이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졌으며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방법론인 현상기술학(phenomenography)를 활용한다(Bradbeer, Healey, and Kneale, 2004; Egiebor and Foster, 2019). 현상기술학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단계는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현상기술학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널리 쓰여 온 7단계 모형(표 4)을 활용하기로 한다(이동민·오홍택, 2020; Khan, 2014; Stenfors-Hayes, Hult, and Dahlgren, 2013).

IV. 분석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수치

양적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의 기술통계 값은 그림 2과 같다. 분석 결과 문항별 평균값은 5점 만점에 4.29~4.56점의 분포를 보인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5~91점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 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가 수강생들의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역사적 안목은 물론 지리적 안목, 통합적 안목의 형성에 의미 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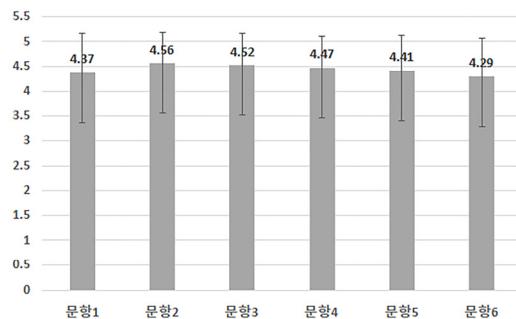


그림 2. 문항별 기술통계 값

2)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전 문항 간 Pearson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1$) 하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 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가 수강생들의 지리적·역사적·융합적 안목 제고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물론, 강좌 수강을 통해 제고된 지리적·역사적·융합적 안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루며 연결됨을 의미한다.

3)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⁴⁾ 전 문항 공히 남학생의 평균치가 여학생의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이 중 문항 1, 2, 3, 6의 평균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역사 통합 교양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이 수강생의 성별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도와 지정학적 안목의 발전 정도, 강의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공 및 고등학교 지리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분석 결과는 각각 표 7과 표 8에 정리하였다.⁵⁾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리나 역사 등의 전공 또는 선행 학습 여부가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의 교육적 의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 7과 표 8은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지리학이나 역사학 전공자는 물론, 지리학이나

표 5. 문항 간 Pearson 상관관계 지수

문항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1	1	.715**	.639**	.489**	.546**	.611**
문항 2	.715**	1	.682**	.551**	.531**	.587**
문항 3	.639**	.682**	1	.696**	.695**	.589**
문항 4	.489**	.551**	.696**	1	.532**	.446**
문항 5	.546**	.531**	.695**	.532**	1	.532**
문항 6	.611**	.587**	.589**	.446**	.532**	1

** $p < .01$

표 6. 성별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문항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남	50	4.50	.678	2.138	.036*
	여	24	4.08	.974		
2	남	50	4.66	.557	2.166	.034*
	여	24	4.33	.702		
3	남	50	4.62	.602	2.093	.040*
	여	24	4.29	.690		
4	남	50	4.52	.618	1.201	.117
	여	24	4.33	.637		
5	남	50	4.51	.649	1.948	.055
	여	24	4.17	.816		
6	남	50	4.46	.646	3.002	.004**
	여	24	3.92	.881		

* $< .05$, ** $p < .01$

표 7. 전공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문항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1	지리교육	9	4.44	.726	.505	.606
	역사교육	6	4.67	.516		
	기타	60	4.33	.837		
2	지리교육	9	4.56	.726	.094	.910
	역사교육	6	4.67	.516		
	기타	60	4.55	.622		
3	지리교육	9	4.67	.707	2.333	.104
	역사교육	6	5.00	.000		
	기타	60	4.45	.649		
4	지리교육	9	4.44	.882	2.018	.141
	역사교육	6	5.00	.000		
	기타	60	4.42	.593		
5	지리교육	9	4.67	.707	2.110	.129
	역사교육	6	4.83	.408		
	기타	60	4.32	.730		
6	지리교육	9	4.56	.527	.623	.539
	역사교육	6	4.33	.816		
	기타	60	4.25	.795		

표 8. 고교 지리 선택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문항 간 차이

문항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1	한국지리	18	4.00	1.029	1.731	.153
	세계지리	10	4.50	.707		
	모두 수강	23	4.57	.676		
	없음	24	4.38	.711		
2	한국지리	18	4.33	.686	1.475	.219
	세계지리	10	4.80	.422		
	모두 수강	23	4.67	.577		
	없음	24	4.50	.659		
3	한국지리	18	4.33	.686	.815	.520
	세계지리	10	4.80	.422		
	모두 수강	23	4.62	.577		
	없음	24	4.50	.590		
4	한국지리	18	4.33	.767	.840	.505
	세계지리	10	4.60	.699		
	모두 수강	23	4.62	.590		
	없음	24	4.39	.656		
5	한국지리	18	4.06	.802	1.882	.123
	세계지리	10	4.70	.675		
	모두 수강	23	4.52	.750		
	없음	24	4.42	.584		
6	한국지리	18	4.00	.970	1.472	.220
	세계지리	10	4.40	.699		
	모두 수강	23	4.24	.700		
	없음	24	4.46	.658		

역사학에 대한 이해나 지식 수준이 깊지 않은 비전공 수강생이 지리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리적·통합적

안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질적 분석 결과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현상기술학의 7단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90개의 노드를 도출하였고, 이를 17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하위 범주를 5개의 상위 범주로 최종 범주화한 다음 이를 토대로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가 수강생들의 지리적·역사적·융합적 안목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가의 여부를 구체적·맥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로 명명하였다(표 9). 현상기술학적 분석의 구성체 타당도 확보를 위해 3인의 전문가(지리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 지리교사 1인, 인문지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1인, 역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 교수 1명)의 검토를 받았다.

5대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을 A(N=34), B(N=39),

C(N=3)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10). 유형 A는 주제 1~4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이고 유형 B는 주제 1~3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유형 C는 주제 5에만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에 토대한 전쟁사의 심층적이면서도 다각적 이해를 제고하며, 이러한 변화는 전쟁사와 관련된 시민성 함양에도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한편으로 강좌 수강이 수강생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 제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수강을 계기로 지리에 대한

표 9. 현상기술학적 분석에 따라 도출된 5대 주제

주제	주요 내용	노드 개수
1.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흐름이 지리적 요인과 배경,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 역사적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지리 지식과 지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 	22
2. 지리적 관점에 입각한 전쟁사의 다각적·심층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학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를 기존의 역사적 관점과는 차별화 되는 지리적 관점에서 재인식함. - 지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과정, 결과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음. 	27
3. 학제간 통합에 대한 인식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제간 통합의 의미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함. - 학제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 	19
4. 지리-역사 통합적 시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하여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함. - 왜곡된 전체주의, 자국 중심주의, 지정학적 이데올로기 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관점과 역사의식, 균형잡힌 이데올로기 등의 중요성을 인식함. 	17
5. 별다른 변화없음	- 강좌 수강 후에도 지리나 역사에 대한 별다른 인식 변화 없음.	5

표 10. 연구참여자의 현상기술학적 유형화

주제	내용	유형		
		A	B	C
1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 제고	○	○	×
2	지리적 관점에 입각한 전쟁사의 다각적·심층적 이해	○	○	×
3	학제간 통합에 대한 인식 심화	○	○	×
4	지리-역사 통합적 시민성 제고	○	×	×
5	별다른 변화없음	×	×	○

이해가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역사적 사건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강좌 수강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사와 관련된 지리적 요인이 피상적인 위치나 병력의 기동 경로 등과 같은 단순하고 과편적인 요소의 수준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경과, 결과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역사 이해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역사의 흐름과 지리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결부지어 제2차 세계대전사를 지리-역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수강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강좌명을 보면서 그저 작전 수준의 지리적 환경, 장애물 정도만 떠올렸다. 사실 지리에 관심이 있는 했지만, 작전의 일부 요소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을 위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전쟁의 원인이자 흐름의 요인으로 지정학을 보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관계가 전쟁의 원인과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였다.”(의료경영, 여, 4학년)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다. 강의를 수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레벤스라움, 대동아공영권, 캅카스의 위치와 중요성 등 지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의예, 남, 1학년)

2) 지리적 관점에 입각한 전쟁사의 다각적·심층적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생들은 지리적 개념과 내용, 관점에 토대한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를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사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층 심도있게 이해하는 안목을 길렀다. 레벤스라움 개념을 통해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정이라든가 대동아공영권 프로파간다가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정 등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했다는 반응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치 독일이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서 유럽 지역을 긴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치즘적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강좌를 통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지정학이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발생 원인을 역사와 지리를 관련지어 한층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지리교육, 남, 1학년)

“제2차 세계대전이 지리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지리적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었다. 나치 독일이 왜 소련을 침공했는지, 일제가 왜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지도를 보고 지리적인 설명을 들으니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콘텐츠제작, 남, 4학년)

3) 학제간 통합에 대한 인식 심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을 통해 학제간 통합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사를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적 개념, 지식, 관점을 토대로 접근함으로써 익숙하기는 하지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쳤던 학제간 통합이나 융합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학제간 통합의 의미와 방법, 방안, 의의 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었다.

“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통합, 융합, 통섭과 같은 단어들이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좁게는 역사학과 지리학의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넓게는 사고의 범위를 한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건축학, 여, 3학년)

“통합과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와도 융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의료경영, 여, 2학년)

4) 지리-역사 통합적 시민성 제고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지리-역사 통합적 관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를 접근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

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층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애초부터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치즘적으로 변질된 레벤스라움 개념이나 대동아공영권 등이 전쟁의 참상이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평화, 인권, 반전(反戰) 등과 같은 시민성 관련 요소들을 한층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전쟁과 관련된 시민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나 도덕 수준을 넘어, 지리에 대한 인식 및 역사의식과 긴밀히 연결됨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일제의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문제는 기존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치즘적으로 왜곡된 레벤스라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유럽인도 학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역사교육, 남, 3학년)

“제2차 세계대전사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남북 분단이나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역사는 물론 지리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경영, 여, 4학년)

5) 별다른 변화 없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강좌 수강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지리적 이해나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 등에는 별다른 변화나 발전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했다. 하지만 융합이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딱히 잘 모르겠다.”(창업지식재산, 남, 2학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리-역사 통합 교양강좌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지리교육적·융합교육적 의의를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는 지리 기반 융합 교양교육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수강을 통한 수강생의 역사적·지리적·통합적 안목 향상 정도 및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상호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수강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역사적·지리적 안목의 발달 정도 및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전공이나 고교 시절 수강한 지리 과목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수강생들은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수강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사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 및 해석할 수 있었고, 이는 수강생들의 지리적 안목 제고 및 이에 따른 시민성 함양에도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전쟁사를 소재로 한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이나 지리 배경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수강생의 지리학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쇄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사를 역사적 관점은 물론 지리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을 제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수강생의 이 같은 변화는 전쟁사에 대한 역사적 안목과 학제간 통합적 안목의 발달과도 의미있는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은 지리교육의 저변 확대 및 학제간 융합과 통합적 사고가 중시되는 현대·미래 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지리교육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해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의의 만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가진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가진 지리교육적·통합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의 교육적 효과에서 젠더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 및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 수강생 중 일부는 강좌 수강 후에도 지리적·통합적 사고나 안목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수강생들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과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언해 본다.

주

- 1) 레벤스라움이란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1844~1904)이 제창한 지정학적 개념으로, 국가나 민족 집단의 유지 및 번영에 요구되는 영역을 말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중반 지정학계를 풍미했던 레벤스라움은 제국주의적·국가주의적 속성이 다분하지만, 이주에 따른 문화의 융합과 변용을 인정하는 등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전쟁만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치스는 레벤스라움 개념을 변질시켜 동유럽을 유대인과 슬라브계 동유럽인을 절멸하고 독일 민족을 이주시켜 독일의 영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치즘적으로 변질된 레벤스라움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영내에서 유대인과 슬라브계 동유럽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벌였던 원인으로 작용했다(Abrahamsson, 2013).
- 2) 1930년대에 일본제국이 민주와 중국을 침략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1937년부터 중국과 협력하여 대 일본 무역 제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자원 부족에 시달린 일본제국은 서구 제국주의의 열강으로부터 아시아의 식민지를 해방한다는 명목 아래 자원의 산지였던 동남아시아를 침공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제창하였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제국의 주도로 아시아를 서구 열강의 손에서 탈환하여 아시아인의 영역으로 재구성한다는 목표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제국의 침략전쟁과 자원·식량·노동력 수탈을 정당화하

는 프로파간다였다(Mimura, 2011).

- 3) 청색 상황(1942년 6월 28일~1943년 3월 14일)이란 유럽의 대표적인 유전지대이자 교통의 요지인 카파스 일대의 점령을 목표로 한 나치 독일군의 작전을 말한다. 청색 상황 초기에 나치 독일군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히틀러는 1942년 8월 21일 병력을 분산하여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을 딴 공업도시 스탈린그라드(오늘날의 볼고그라드) 점령을 명했으며,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의 지형을 활용하여 이곳에 나치 독일군 30만 명을 고착한 뒤 후방의 예비병력을 충동원하여 포위 섬멸(1942년 11월~1943년 2월 2일)하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이 추축국에서 연합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권도승 외 역, 2007).
- 4) 통계분석 값에서 응답자 수가 전체 연구참여자의 수보다 작을 수가 있는데, 이는 결측값(미응답)을 제거한 데 따른 결과이다.
- 5) 표 7과 표 8의 경우 지리교육 전공자와 역사교육 전공자가 각각 9명, 6명인데 비해 기타 전공자의 수는 60명이다. 표본 간 크기 차이가 상당하므로 통계분석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활용했음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 강선주, 2006, “미국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에서 ‘서구문명’강좌의 변천: 하버드, 콜롬비아, 시카고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44, 143-170.
- 권정화, 2010, “지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구도 설정”, 대한지리학회지, 45(6), 711-720.
- 권정화, 2020,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 김민성, 2018, “미국 대학의 세계지리 수업과 한국 지리교육과정에의 시사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74-590.
- 김민성, 2019, “공간적 관점 및 도구와 역사적 콘텐츠의 융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4), 55-68.
- 김민성, 2020, “지리에 대한 인식 조사: 지리 전공과 비전공 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1), 33-47.
- 김수연,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연극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61, 33-61.
- 박철웅, 2016,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정체성과 대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1-13.
- 박혜정, 2020, “21세기 교양교육의 융합학문적 지도 그리기: 빅히스토리의 인문학적 전환을 통하여”, 교양교육연구, 14(6), 25-37.
- 손승남, 2013, “대학설립 초기의 교양교육 전통과 그 창조적 재

- 생”, *교양교육연구*, 7(2), 199-200.
- 신정엽, 2009, “공간 인지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25-143.
- 심승희·권정화, 2013, “영국의 2014 개정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시사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7-31.
- 이간용, 2019, “독일의 초등 지리교육과정 변화 특성 및 그 함의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1-17.
- 이동민, 2021, “내러티브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 교수 학습 모형 개발: Story Maps를 활용한 황색 상황의 지리 공간적 재현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89-106.
- 이동민·오홍택, 2020, “디지털 지오포эм의 지리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한국지리 지형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27-42.
- 이민부, 2010, “역사학과 지리학의 관계 소고”, *한국고대사연구*, 58, 5-17.
- 이지성, 2017, “종교개혁과 대학교육 개혁, 그리고 교양교육: 개혁자들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9, 37-71.
- 이해영, 2018,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한 역사교육 목적 탐색”, *역사와 담론*, 85, 493-524.
- 최현철, 2019, “융합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 13(5), 153-170.
- Abrahamsson, C., 2013, On the genealogy of Lebensraum, *Geographical Heketa*, 68, 37-44.
- Arnaud, P., 2016, Marcus Vipsanius Agrippa and his geographical work, In Bianchetti, S., Cataudella, M., and Gehrke, H.-J., *Brill's Companion to Ancient Geography: The Inherited World in Greek and Roman Tradition*, Brill, Leiden, The Netherlands, 203-222.
- Bell, D., 2005, The value and importance of geography, *Teaching Geography*, 30(1), 12-13.
- Berryman, J., 2018, Geopolitics, In Tsygankov, A. P.(ed), *Routledge Handbook of Russian Foreign Policy*, Routledge, London, 60-78.
- Bjelland, M.D., 2004, A place for geography in the liberal arts colleg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6(3), 326-336.
- Bradbeer, J., Healey, M., and Kneale, P., 2004, Undergraduate geographers' understandings of geography, learning and teaching: A phenomenographic stud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8(1), 17-34.
- Clarke, K., 2018, *Shaping the Geography of Empire: Man and Nature in Herodotus' Histor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 Coleman, B., 2015, History storytelling with ESRI's Story Maps application, *Teaching History*, 49(4), 60-61.
- Conrad, L., 2014, Integration and the liberal arts: A historical overview, *On the Horizon*, 22(1), 46-56.
- Dale, S.F., 2006, Ibn Khaldun: The last Greek and the first annaliste histori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8(3), 431-451.
- Egiebor, E.E. and Foster, E., 2019,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engagement in using GIS-Story Maps, *Journal of Geography*, 118(2), 51-65.
- Gao, W., Jiang, W., and Zhou, M., 2019, STEAM-based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of geography in University of Jinan, *Advances in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116, 553-557.
- Gat, A., 2006,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오숙은·이재만 역, 2017, *문명과 전쟁, 교유 서가*).
- Glantz, D.M. and House, J.M., 1995, *When Titans Clashed: How the Red Army Stopped Hitler*, University Press of Kansas, Lawrence, KS(권도승·남창우·윤시원 역, 2007, *독소전쟁: 붉은군대는 어떻게 하틀러를 막았는가, 열린책들*).
- Harrison, S. and Passmore, G., 2021, On geography and war: New perspectives on the Ardennes Campaigns of 1940 and 1944,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1(4), 1079-1093.
- Hayden, P., 2004, Constraining war: Human security and th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s Review*, 6(1), 35-55.
- Hovland, K. and Schneider, C.G., 2011, Deepening the connections: Liberal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in college, *About Campus*, 16(5), 2-8.
- Khan, S.H., 2014, Phenomenograph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Research*, 25(1), 7-25.
- Koda, Y., 2005, The Russo-Japanese War: Primary causes of Japanese success, *Naval War College Review*, 58(2), 10-44.
- Kurennoy, V., 2020, Philosophy of liberal education: The principles, *Educational Studies Moscow*, 1, 8-39.
- Lee, J. and Butt, G., 2013, The reform of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in South Korea: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 Environmental Education*, 23(1), 13-24.
- Mayhew, R.J., 2001, The effacement of early modern geography (c.1600-1850): A historiographical essa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3), 383-401.
- Mimura, J., 2011, Japan's new order and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Planning for empire, *The Asia-Pacific Journal*, 9(49), 1-12.
- Modiri, M., Aghataher, R., Fallah Zazuli, M., and Jafari, M., 2013, Importance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GIS) in the command and control (C4I), *Scientific-Research Quarterly of Geographical Data*, 22(86), 5-16.
- Northhaft, H., 2016, A framework for strategic communication research: A call for synthesis and con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10(2), 69-86.
- O'Loughlin, J. and Witmer, F. D. W., 2011, The localized geographies of violence in the North Caucasus in Russia, 1999-2007,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1(1), 178-201.
- Patrikeeff, F. and Shukman, H., 2007, *Railway and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Routledge.
- Rech, M., Bos, D., Jenkins, K. N., Williams, A., and Woodward, R., 2015, Geography, military geography, and critical military studies, *Critical Military Studies*, 1(1), 47-60.
- Smith, N., 1992, History and philosophy of geography: Real wars, theory war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2), 257-271.
- Solís, P., Huynh, N. T., Carpenter, D., De Newbill, M. A., and Ojeda, L., 2017, Using an authentic project based learning framework to support integrated geography education linked to standards and geospatial competencies, *Research in Geographic Education*, 19(2), 36-65.
- Stenfors-Hayes, T., Hult, T., and Dahlgren, M. A., 2013, A phenomenographic approach to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30(2), 367-372.
- Stoddart, D.R., 1992, Geography and war: The 'new geography' and the 'new army' in England, 1899-1914, *Political Geography*, 11(1), 87-99.
- Svobodová, H., Spruná, M., and Knecht, P., 2020, Pojetí geografie a geografického vzdělávání u studentů učitelství v Česku, *Geografie*, 125(4), 501-526.
- Wang, Q., 2021, The ancient Chinese thoughts on Military Geography. In Jiang, X.(ed.), *The Studies of Heaven and Earth in Ancient China: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Volume 2), Springer, Singapore, 357-376.

접수일 : 2021. 10. 22

수정일 : 2021. 11. 10

게재확정일 : 2021. 11. 10

교신: 이동민, 256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dr.dongminlee@gmail.com, 033-649-7752)

Correspondence: Dong-min Lee, dr.dongminlee@gmail.com

